

인도어 서핑샵·스크린 골프룸·펫파크 다 갖췄다

“쇼핑가서 추억 쌓아요”... 아울렛의 변신은 무죄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기흥점 오픈

부지 15만㎡에 연면적 18만㎡
‘자연친화형’으로 차별화 설계

명품·리빙 등 브랜드 300여개
인근에 AK플라자 등 입점 예정
1년 이내 매출목표 4000억원

“고객들이 설레임을 안고 매장에 와서 만족감을 얻고, 좋은 추억을 남기고 돌아가게 하는 게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의 장점입니다. 온라인에서 체험할 수 없는 것들을 즐기고, 감성에 다가가는 점이 아울렛의 매력 아닐까요? 워라밸 문화가 확산하면서 프리미엄 아울렛의 전망은 더 밝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노윤철 롯데 아울렛 영업본부장)

‘자연을 담은 놀이터’가 용인 기흥에 들어선다.

기흥에 없던 새로운 콘셉트의 아울렛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기흥점’이 6일 그랜드 오픈한다. 이곳은 상업형 아울렛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휴식할 수 있는 쇼핑공간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개점에 앞서 5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에 위치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기흥점에서는 노윤철 롯데아울렛 영업본부장, 정후식 점장, 이정혜 디자인 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오픈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정 점장은 이날 “프리미엄 아울렛 기흥점은 기존과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갖춘 자연친화형 아울렛으로 설계했다”며 “피렌체 컨셉의 고풍스러운 인테리어로 꾸몄고, 하이브리드형(인도어+아웃도어) 매장으로 조성해 교외형아울렛의 최대 약점인 기상악화를 극복했다”고 말문을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기흥점 피노키오 광장(위 왼쪽부터 시계방향)과 피크닉가든, 서핑샵 ‘플로우하우스’, 골프 매장, 나이기매장.



/롯데쇼핑

뻤다. 주변에 상업시설이 없고 자연 경관이 뛰어나다는 이점을 살려 그 콘셉트를 ‘자연을 담은 쇼핑 놀이터’로 정했다.

기흥점은 동탄 신도시, 수원, 분당까지 30분내 접근이 가능하며 서울, 경기권에서 6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해 많은 고객 수요가 예상된다. 규모는 부지면적 15만㎡(4만5000평), 연면적 18만㎡(5만3000평), 영업면적 5만㎡(1만5000평)에 달하며 명품부터 리빙까지 약 300여개 브랜드가 들어섰다.

정 점장은 “구매력이 높은 배후상권을 갖고 있는 것은 장점이다. 향후 13만평 규모의 국내 최대 관광단지가 조성되면 더욱 시너지를 낼 전망”이라고 말했다. 인근에는 이케아(IKEA)와 AK플라자, 레지던스 호텔이 들어설 예정이다.

기흥점이 위치한 곳은 원래 용인시가 도시개발계획지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용인시가 상업 시설 입점 수요자를 모집

할 때 참여해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기흥점이 들어서게 됐다.

평일에는 약 8000명, 주말에는 4만 5000명 정도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매출 목표는 1년 이내에 4000억 달성이다.

노 영업본부장은 “1년차에 흑자 전환에 성공해 3년차에 롯데그룹에서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기흥점은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까지 총 4개층으로 이뤄졌다. 지하 2층에는 ‘코치’ ‘마이클코어스’ 등 해외 명품과 ‘타임’ ‘마인’ ‘마주’ 등 주요 컨템포러리의류 매장이 들어서며, 지하 1층은 ‘보브’ ‘시스템’ ‘듀얼’ 등 영계주얼 상품군과 구두, 피혁 매장이 들어섰다. 1층은 아웃도어, 아동, 스포츠 전문관으로 구성됐다. 데상트, 언더아머 등 스포츠 브랜드 11개 매장과 ‘디스커버리’ ‘노스페이스’ 등 12개의 아웃도어 매장, 18개의 골프 브랜드가 입점했다. 최상층부인 2층은 13개의

식당과 매장과 라이프스타일 서점, 토이저러스, 키즈카페 등으로 꾸며졌다.

해외 브랜드 유치에 대한 포부도 드러냈다. 노 영업본부장은 “해외 명품 브랜드들이 국내 매장 입점에 제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롯데 뿐만 아니라 모든 유통사들이 해외명품 유치에 어려움을 안고 있다”며 “해외 명품 브랜드는 지속적으로 유치할 생각이다. 현재 기흥점에 입점한 300개 브랜드는 내일부터 정상영업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기흥점은 기존 아울렛과 콘텐츠 측면에서 차별화를 뒀다.

아울렛 지하 2층에는 롯데에서 20억을 투자해 국내 유통업체 최초로 463.4㎡(140평) 규모의 인도어 서핑샵 ‘플로우하우스(Flow house)’가 들어섰다. 고객들은 서프 시뮬레이터에서 바다 서핑, 스케이트 보딩, 스노우 보딩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익스트림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

며, 인공 파도 위에서 1분 동안 쏟아지는 11만3000톤의 물을 시속 27Km 속도로 즐길 수 있다.

용인 지역 ‘코리아CC 골프장’ 옆에 위치한 기흥점의 특징을 살려 골프 상품군을 대거 확충했다. 668㎡(202평) 규모의 골프 용품 전문 매장 ‘골프존 마켓’에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300인치 커브드 와이드 스크린이 설치된 ‘스크린골프룸’이 있어 골프 시타와 함께 전문가에게 원포인트 레슨을 받을 수 있다.

1층 실외에는 660㎡(200평) 규모의 대형반려동물 놀이터인 ‘펫파크’가 들어선다. 반려견과 함께 쉴 수 있는 시설 및 휴게공간을 마련해,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한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아시아 최대 나이기 매장, 유통사 최초 해외 캠핑용품 직수입 전문샵과 중고서적 전문브랜드 에스24 운영한다. 아이가 있는 3040대 패밀리 고객이 많은 것에 착안해 유/아동 콘텐츠도 차별화했다. 아울렛 최대 37개 유아동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롯데가 약 8억을 투자해 직접 만든 ‘숲 모험 놀이터’가 있다. 바닥 전체에 우레탄을 깔아 안전성을 더하고 대형 인공트리/그물 놀이시설을 설치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다.

기흥점은 기존 아울렛보다 50% 가량 휴식 공간을 늘려 쇼핑과 함께 가족들과 일상의 소중한 가치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정문에 들어서면 유럽 정원 양식의 돔 조형물인 ‘로툰다’를 설치한 광장이 넓게 펼쳐져 동화 속에 온 듯한 감성을 느낄 수 있다. 지하 2층 외부에는 동화 속 피노키오 조형물을 설치했고, 1층 외부에는 분수쇼를 즐길 수 있는 ‘샤롯데가든’이 있다. 고객에게 다양한 시각적 즐거움을 주기 위함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신탁재산 임의운용 등 위반 무더기 적발

은행·보험·증권사 합동검사

금감원, 과태료 부과 등 제재키로

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보험·증권회사 등에 대한 합동검사 결과 같은 신탁 상품에 가입했음에도 수수료를 30배 가까이 차별 부과하거나 고객과 계약한 방법과 다르게 신탁재산을 임의로 운용하는 등 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관련 기관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검토하고 신분제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은행 4곳(신한·IBK 기업·KB국민·NH농협은행)과 증권사 3곳(삼성·교보·IBK투자증권), 보험사 1곳(미래에셋생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사는 올해 초 조직개편에 따른 기능별 영업행위 감독의 일환으로 금융권역 간 신탁 상품의 판매, 운용에 대한 검사 사각지대와 규제차익 해소를 위해 이뤄졌다.

검사 결과 신탁상품 판매, 신탁재산 운용, 신탁 보수 등 세 개 부분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메트로신문

신탁상품 판매 부문에서는 금융회사들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신탁상품을 홍보하고, 별도의 판매자격을 갖추지 않은 직원들이 신탁 상품을 권유 또는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위험 등급의 주가연계형 특정증권신탁(ELT) 등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투자 부적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또 신탁계약 체결 시 운용대상 상품의 종류와 비중 등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자필 기재를 받지 않거나 신탁상품을 투자 권유하면서 상품의 위험요인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사례도 발견됐다.

한편 합동검사 대상 중 유일한 보험사인 미래에셋생명은 위반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희주 기자 hj89@

‘삼성전자의 상생’ 2차 협력사에도 인센티브

DS부문 89개사 대상 43.2억 지급
1차 업체에 654억 등 최대 897억

삼성전자가 동반성장을 위해 지금까지 1차 우수 협력사에 지급해온 인센티브를 처음으로 2차 우수 협력사까지 확대했다고 5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DS부문 상주 2차 협력업체 89개사를 대상으로 43억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1차 우수 협력업체 140여개사에 654억원을 지급했다. 여기

에 1, 2차 우수 업체 추가선정과 지급기준 확대를 통한 100억~200억원 증액을 감안하면, 협력사 인센티브는 최대 897억원이 될 전망이다.

이로써 협력사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된 2010년 이후 삼성전자에 협력사에 지급한 인센티브 누적 총액은 총 3124억원에 이른다.

한편 삼성전자는 임직원들에게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기본급의 100~500%를 특별 상여로 지급하고, 특히 사내 상주 협력사 임직원에게도 특별 상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반도체 경영성과에 기여한 상주 협력사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특별 상여는 DS부문의 특별 상여금 재원 중 일부를 상생협력금으로 조성하고, 회사도 동일한 금액을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추가 출연한 총 182억원 규모다.

또한 삼성 계열사들은 최근 사회복지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 500억원 기탁을 결정한 데 이어, 연말연시와 창립기념일 등 의미 있는 날에는 대표이사과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봉사 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구서운 기자 yuni2514@

고화질 컬러영상 10분마다 지상 전달

>> 1면 ‘천리안 2A호…’서 계속

천리안위성 2A호는 앞으로 약 2주간 자체 추력기를 이용해 목표치인 고도 3만6000km로 접근을 시도한다. 정지궤도에 자리를 잡은 후에는 6개월여 시험을 거친다.

본격적인 기상 관측 서비스는 내년 7월 1호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천리안위성 1호

보다 해상도가 4배 높은 고화질 컬러 영상을 10분마다 지상에 전달하게 된다.

기상청은 천리안2A호가 보낸 컬러영상을 통해 기상분석 정확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름과 산불 연기 및 황사를 구분할 수 있고, 태풍 중심위 추적도 가능해지면서다. 국지성 집중호우도 최소 2시간 전에는 탐지해낼 수 있게 된다.

국내 최초 우주기상 관측 서비스는 국내 우주기상 감시와 관련 연구에 기여할 전망이다.

천리안2A호는 국내에서 개발한 우주기상탐재체로 태양 흑점 폭발과 지자기 폭풍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최원호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국민께 더욱 정확한 기상서비스뿐 아니라 산불 황사, 오존 등 국민 생활과 안전 제고에 필수적인 정보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